

# 해양학자의 환경일기 '서른한 번째 기록-해군과 해양'

### 이타적 유전자

윤승태

경북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부  
해양학전공 조교수



연평도 해상에서 한국 측 해군 함정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뉴스시

대한민국 해군은 해상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대한민국 국군의 조직이며, 해군사관학교는 대한민국 해군과 해병대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사관학교이다. 해군사관학교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빈동 진해 해군기지에 위치한다. 해군사관학교에는 졸업 후 해군의 전문 인력 양성 계획에 따라 국내 외 우수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학위 과정 시절 필자가 속한 연구실에도 해양학 분야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파견 교육을 온 해군 장교분들이 있었고 함께 연구도 수행했었다.

해군 위탁 교육생들 덕분에 해군에 관해 여러 방면에서 접해 볼 기회가 많았는데 특히, 진해 군항제 기간에는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해 보기도 했었다. 진해 군항제 당시에는 아쉽게도 교통 체증 때문에 해군사관학교의 모습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했는데, 지난 5월9일 두 번째로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다. 학위 과정 시절 연을 맺었던 해군 위탁 교육생분들 중 해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변 교수님께서 1학년 해군 사관생도 대상 기 후 변화 강의를 요청해주신 덕분이었다.

강의 당일 자차로 대구에서 진해까지 이동했는데 이전 방문때와 달리 교통 체증 없이 아주 여유롭게 해군사관학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정문에 도착 후 변 교수님과 함께 입구에서 방문 신고를 하고 교정에 들어서니 어마어마하게 드넓은 캠퍼스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문에서부

터 강의실까지 거리가 꽤 멀어 변 교수님을 타고 이동했는데 이동 중에 보이는 산과 바다, 바다 위 등성등성 위치한 섬들이 이런 풍경이 가슴을 탁 트이게 했고, 이런 풍경 속에서 군복을 입고 훈련 중인 해군 장교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살짝 뜨거워졌다.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해군사관학교 해양학과 건물이었다. 변 교수님의 오피스를 잠시 구경하고 재직 중인 해양학과 교수님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해군사관학교 해양학과는 해군사관학교 이학처(기초과학과, 국방경영학과, 해양학과,

사이버과학과, 인공지능학과)에 속한 학과로 총 5인의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학과는 해양물리, 수증응향, 해양기상 등 해양학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무와 연계된 교육을 통해 해양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이를 실제 작전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곳이었다.

이후 건물 몇 개를 더 지나 강의실에 도착해 드디어 1학년 사관생도들을 만났다. 필자가 강의 요청을 받은 교과목은 1학년 융합 기초/심화 과목 중 하나인 '하나뿐인 지구(소중함 바다)'였다. 필자가 준비한 발표 주제는 '기후 변화가 야기하는 남극 해양의 변화'였고, 사관생도들이 생소하게 느낄 남극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남극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 반응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실 1학년 사관생도들이 새벽 기상 후 오전 훈련과 뻘뻘한 강의 일정으로 피곤한 상태인데다 오후 3시 강의여서 학생들이 졸지 않을까 우려도 있었지만 사관생도들의 적극적인 강의 참여와 질문 덕분에 강의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필자는 전문연구원으로 군복무를 대

실했었기 때문에 실제 군대 생활을 한 것은 훈련소 4주가 전부이다. 이번 강의를 통해 해군 장교가 되기 위해 대학 1학년부터 군 생활을 하며 학업에도 열심인 사관생도들을 보니 새삼 대견하고 또 고맙게 느껴졌다. 또한, 해군력의 강화와 해양의 발전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다. 미국의 해양학 분야가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 제일의 해군력 덕분이다. 실제로, 미국 해양학 분야에서 연구비 규모가 큰 연구 과제들은 미 해군 관련 과제인 경우가 많으며, 이는 학군 간 협력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해군은 미 해군에 비하면 군사력 규모가 매우 작으며, 국내 육군의 군사력에 비해서도 약한 편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해군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작은 대양'으로 불리는 동해를 보유하고 있어 과학적으로 연구 가치도 높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해군의 발전이 해양학 분야의 발전임을 알고 앞으로 해군사관학교와의 강의와 연구 교류 그리고 협력과제 개발 등에 힘쓰고자 다짐했다.

## 강기정 광주시장 취임 2년과 '3가지 리더십'

기고

정경남  
효령노인복지타운  
본부장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4월 열린 광주시의회 제324회 임시회에서 시정(市政) 중간 성적을 설명한 바 있다. 강 시장은 자리에서 "변화와 혁신을 다짐하면서 시작한 민선 8기가 어느새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며 "지난 1년 10개월 광주 시정은 해결사였다. 밀린 숙제인 '5+1'의 실타래를 풀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는 기반을 다졌다"고 자평했다.

이어 "광주 대전환의 시계는 2030년에 맞춰져 있다"면서 '2030년 청사진'으로 5가지를 언급했다. 즉, 3대 복합쇼핑몰 건

립으로 이용 인구 3000만 시대, 미래 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잇는 '달빛 내륙철도', 시민의 발이 될 도시철도 2호선, 정부보다 한발 앞선 온실가스 45% 감축 등이다. 따라서 "앞으로 2년은 2030년을 향한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년 전 취임사에서 '신경제·꿀잠·돌봄·안심·교육 도시'라는 5가지 목표를 정하고,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를 열겠다는 다짐을 했다. 강한 추진력과 의회 지원, 9000여 공직자의 창의 행정과 시민이 힘을 모았다. 곳곳에서 손에 잡히는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굴곡 속에서 이런 성과는 강 시장 리더십이 한몫 톡톡히 했다고 여겨진다. 그 가운데 핵심 능력 3가지를 꼽는다.

우선 정무 능력이다. 정책 앞에 맞닥뜨리는 현실은 복잡하다. 이해관계도 얽혀

있다. 군·민간 공방 이전 사업이 그렇다. 강 시장은 앞서 누구도 풀지 못한 숙원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비판을 수용하되 당 위성을 밝히고, 양해와 설득을 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왜 이 일을 하는가? '광주·전남이 함께 발전하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역설한다.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느낀다.

다음은 창의력이다. 리더는 답을 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관점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야 한다. 일례로 '영산강·황룡강 권역 Y벨트 사업'을 들 수 있다. 오랫동안 흐르고 있는 두 강을 과거와 미래, 기술과 예술, 광주와 전남이라는 가치를 더했다. 말하자면 개발과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란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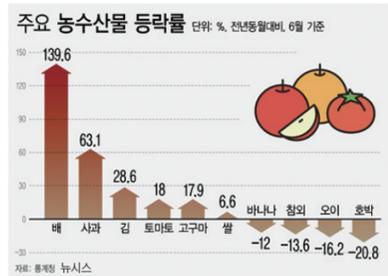
그리고 공감 능력이다. 행정을 하려면 시민의 어려움이 보여야 한다. 그것을 내 일처럼 느껴야 한다. 사회 약자에 대한 측

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나아가 배려가 있어야 한다. 민선 8기 대표 복지정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에서 잘 나타난다. 작년 9월 전국 광역시 최초로 6900여 농가에 지급한 '농민공익수당'도 본보기다.

앞에서 말한 능력을 강 시장의 '리더십 트리오'라고 부르고 싶다. 정무 능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이유를 덧붙여 시정을 꾸린다는 의미다. 덕분에 어려운 일을 하나씩 해결하

고 있다. 정치를 오래 한 시장이 행정을 잘 할까? 우려를 말끔히 씻었다. 끝으로 시정을 하면서 꼭 지켜야 할 그 무엇이 있다. 바로 '민주주의'와 '주민 복지'다. 가장 민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주민 복지를 증진하는 일이다. 시민들도 내가 하기에 따라 시정이 꽃을 피우고 민주주의가 번성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2년간 지역발전 에 애쓴 강 시장과 공직자 모두를 결해서 응원한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 보약·홍삼은

## 40년 오직 한 길!

# 복고당 한약방

###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